

제 6 장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2)

우리들이 성경을 펼쳐서 첫 권, 첫 장, 처음 구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언급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를 나타내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첫째 장, 첫째 구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필요성

우리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거의 끝도 없습니다-흙과 씨앗들, 나무와 열매들, 물과 무기물들, 물고기와 가축떼, 중력과 같은 자연의 거대한 움직이는 힘, 별들의 움직임 등등, 우리가 연구와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무한합니다. 그러나 실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

고 있는 것 배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체 뒤에 있는 실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아무리 세심하게 관찰한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세계를 형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들을 연구나 관찰에 의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이해력은 단지 어느 한도까지만 미칠 수 있으며, 그 이상이 되면 깊은 무능력과 부적합성의 심연 속에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이 가득한 등지 위에 앉아서 여러 시간을 보냈던 암탉과도 같습니다. 부화된 새끼는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새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면서 그 암탉은 물가로 그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그 암탉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부화시킨 그 작은 새끼들은 바로 연못으로 헤엄쳐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암탉은 그 곳에 서서 자신의 새끼들을 놀라움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암탉은 그들의 새로운 모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 병아리들이 물에 가면 멈추어 서고, 오리 새끼들은 바로 물 속으로 걸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성과 모든 이해력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는 꼭 그 만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쓰고, 조사하고, 비교하고 방정식이나 공식에 집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그 외부적인 현상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배후의 의미,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관찰한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실체-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별들을 영원히 볼 수 있고,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그 분이 전능

하시다는 결정적이고 확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아십니까? 그 분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 현상을 영원히 연구할 수 있지만 결코 그 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능자의 손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무지개, 가을의 황혼, 가을이면 황홀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나무들, 대지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들—우리들은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름다움과 균형과 색깔을 창조했다는 바른 확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입니까?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은 무지개와 구름과 그랜드 캐년의 색조와 황혼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연구할 수 있지만 결코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감수성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한 가족이나 종족 혹은 인종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 문화 속에는 우리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과 도덕성을 연구해 보면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그 분은 도덕적으로 민감하시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누구이며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를 나타내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자기 계시가 전혀 없다면 우리들은 그 분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의미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구 상의 커다란 대륙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 상의 큰 산맥들과 계곡들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를 적셔주는 큰 강들과 하천들의 근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기에 있어서 놀라운 신비 중의 하나는 나일강 물의 수량 변화였습니다. 그 비밀은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그 큰 강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의 생애를 나일 강의 근원을 찾기 위한 아프리카 탐사에 바쳤고, 그는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가에 서서 그 아름다운 호수-나일강의 근원으로부터 쏟아져 흘러내리는 거대한 격류를 바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몰랐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들은 모두, 전기나 페니실린 등 우리들 자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예학, 농경, 양과 염소와 소떼를 기르는 법, 삼각법, 화학, 물리학, 천문학-모든 과학적 사유의 넓은 연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한 삶의 의미와 목적, 속죄와 죄의 용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갖는 목적인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머리 속으로 주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광경을

냉소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막에서 그 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은 배고픔으로 지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작은 마른 빵 조각 몇 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것으로 오천명의 군중을 먹이신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아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서는 그 빵을 집으사 그것을 떼십니다. 그리고는 그 분은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냉소적인 사람이 거기 서서 주께서 빵을 떼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왜 루비나 에머랄드나 다이아몬드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아름다움과 광채를 지닌 채 영원히 간직될텐데, 그는 단지 그들에게 빵만 주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일 행하시는 이유는 그 분은 갈급한 영혼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사람들의 요구를 돌보시며, 그 요구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고 기르시기 위한 것이지, 이런 다른 외부적이고 장식품과 같은 물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귀중한 보석류를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 너머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보석을 찾으려고 사막을 건널 때,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뜨겁게 타는 사막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모래 언덕으로 기어가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앞에 반쯤 묻힌 물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그 물통에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그 물통에는 생명의 물이 있겠지! 그는 물통을 집어들고는 마개를 열고 물을 마시려고 물통을 자기 입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오는 대신 청백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물통에서 주룩룩 쏟아졌습니다. 화가 나서 그는 물통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불타는 사막 위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절망과 갈증 속에서 죽었습니

다!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 질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생명의 물, 하늘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자기 계시 없이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점진적인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점진적이며, 계속해서 더욱 충만해 지고, 풍부해 지고, 확대되며, 더욱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계시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린 아이에게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가르칩니다-즉, 걷기, 말하기, 단어 발성법 등 그리고 나서야 우리들은 점점 그 아이가 완전한 지식을 지닌 어른이 되도록 인도해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도 성경 속에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계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확장하고 늘려 나갑니다.

왜 계시가 점진적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필요성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은 아닙니다. 그 분은 불변하십니다. 즉,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은 성경의 첫 구절 속에서 발견되는데, 또한 요한계시록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도 그 분은 충만하고 영광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계시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은 우리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들은 완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

은 타락했고 무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순수성이나 거룩함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는 단지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며 순종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다가와서 이혼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것이 이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증서를 써 주어라. 그녀에게 네 이름을 서명한 종이 쪽지 한 장을 주고, 그녀를 네 집 밖으로 쫓아내라.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 19:8).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집안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분의 뜻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다윗은 아홉 부인을 두었으며, 어째서 솔로몬은 칠백 명의 부인과 삼백 명의 첩을 두었을까요? 또 왜 모든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깨뜨리는 혼잡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인간들은 까다롭습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갈수록 점점 더 점진적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후에는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주목해 봅시다. 요한복음 16:12에 보면 다락방에서

교훈 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들은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우리에게는 불가해한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압도됩니다. 인간의 집안에는 영광과 충만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너무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린아이들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이 선포된 시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분은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분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 한 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는 충분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그 때의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열방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분께서는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요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계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시의 확장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을 거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인 틀을 통하여, 마침내는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권위있는 기록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점진적이며, 성경의 전체 구절을 통해서 점점 더 완전해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계시는 우리들에게 권위있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

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거기에 근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없고, 흠이 없으며, 우리에게 권위있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 20-21).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사사로이” 라고 번역된 “사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디아스 (ιδίας) 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의 개인 소유의” 라는 뜻입니다. 두번째 단어는 에필뤼세오스 (ἐπιλύσεως) 인데, 문자적인 뜻은 “풀어 놓은”이라는 뜻이며 그것이 “근원”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원인과 유래를 뜻하는 탈격형으로서, 이 경우에는 근거 및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문자적인 번역을 한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한 사람의 자기의 사적인 근원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해력, 설득력, 사고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들이 제시한 거룩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흠이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속이거나 수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권위있는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은—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어떤 종류의 것이든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러한 교리와 진리와 소망과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발견하겠습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원초적 교회(Mother Church)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당신을 천국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 속에서, 교회를 믿는 이들은 커다란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는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과 모든 교리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과 실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라틴의 교부 키프ريان(Cypr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지 못한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인 어거스틴은 “나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확증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속한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믿는 편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계급질서라고 할 교회가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진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죄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상-무염시태(無染始胎, Immaculate Conception)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상한 생각이 참되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참되다고 했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전승적인 마리아의 무덤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은 거의 이 천년 전에 마리아가 장사지내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50년대에 바티칸에 갔을 때에는 교회가 그 당시에 마리아의 육체적인 승천설을 교리로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교회 계급 제도는 마리아가 장사지낸 바도 없고 그녀의 무덤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은 그녀가 죽었을 때 하늘로 몸이 들려 올라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로 면죄부 판매를 가능케 했던, 커다란 공적을 쌓아두는 창고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연옥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뒷받침 하는 권위의 근거가 교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는 또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특히 학문적인 집단에서 그들이 신봉하는 신앙의 권위를, 그 신앙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존주의나 신정통주의, 또는 모든 사물이 참된 것은 그것이 경험으로 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득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경험이 확증하는 한도 내에서만 성경이 참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옳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삶과 삶의 모든 해석을 자기들의 경험이나 존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퍼전 (Spurgeon)은 언젠가 그와같은 일에 꼭 맞을 만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거짓말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죄에 싸여 있다.” 저는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다”라는 말의 권위에 제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경험이 죄로 싸여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락한 피조물이며, 저의 경험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 경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제한되고, 죄가 가득한 경험 이상의 제가 디디고 설 수 있는 권위를 요구합니다. 저는 디디고 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토대가 될 흠없는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자

기가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구원과 소망의 근거와 위대한 권위가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류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며, 그 분은 자기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 자신의 자기 계시로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 새벽 두시에 잠이 깬다면 저는 요한복음 1:11-12을 펴고 읽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열 살 되었을 때, 열 살 짜리 소년으로서도 제가 아는 그 방법으로 저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눈물로 저를 향하여 물어 보셨습니다. “아들아, 오늘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약속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교리와 교회와 나의 구원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발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반석-하나님의 거룩하고 계시된 말씀-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